
2026년 식품산업진흥 시행계획

근거 : 제4차 식품산업진흥 기본계획(2023 ~ 2027)

2026. 2. 11.



농림축산식품부
푸드테크정책과

목 차

I . 추진배경	1
II . 2025년 주요 성과	3
III . 2026년 과제별 추진계획	4
1. 첨단기술을 통한 식품산업 성장 도모	4
2. K-Food 경쟁력 강화	7
3. 전통식품 산업 활성화	11
4. 식품산업과 농업 간 연계 강화	14
5. 식품산업의 성장 기반 공고화	16
붙임. 과제별 추진 일정	19

I. 추진배경

□ **(기본계획)** 「식품산업진흥법」 제4조에 따라 식품산업 진흥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5년 단위로 기본계획을 수립

○ '08년부터 총 4차례의 기본계획 수립(1차: '08, 2차: '12, 3차: '18, 4차: '23)

< 기본계획 포함 사항(동법 제4조 제2항) >

1. 식품산업의 진흥에 관한 기본방향
2. 식품산업과 농어업의 연계강화에 관한 사항
3. 외식산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
4. 전통식품의 개발·보급 및 세계화에 관한 사항
5. 식품의 품질향상·수급·인증제도 등에 관한 사항
6. 식품산업 관련 기술의 개발 및 보급 등에 관한 사항
7. 식품산업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및 통계·정보화에 관한 사항
8. 우수 식재료 소비 촉진에 관한 사항
9. 식품의 품질 등에 관한 소비자 정보제공 및 보호에 관한 사항
10. 국가식품클러스터에 관한 사항

□ **(시행계획)** 「식품산업진흥법」 개정('18.12)을 통해 식품산업진흥 기본계획의 이행을 위한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의무화

○ 개정된 법에 따라 '20년부터 매년 시행계획 수립

< 시행계획 수립 근거(동법 제4조 제3항) >

제4조(식품산업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등)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(이하 "시행계획"이라 한다)을 수립·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
참고

제4차 식품산업진흥 기본계획 비전 · 목표 및 주요 과제

비전

글로벌 산업으로 성장하는 'K-Food'

목표

- ◆ **[산업 성장]** 식품산업 규모 : '21) 656 → '27) 1,100조원(연평균 9%↑)
- ◆ **[수출 확대]** K-Food 수출액 : '22) 88.2 → '27) 150억불
- ◆ **[농업 연계]** 국산 원료 사용량: '21) 594 → '27) 800만톤

5대 추진전략

주요 과제

전략 및 과제

1. 첨단기술을 통한
식품산업 성장 도모

- 지역~세계로 푸드테크 산업 확산
- 그린바이오 기술의 식품 분야 적용 확대

2. K-Food
경쟁력 강화

- K-Food 수출 확대
- 국내 미식관광 활성화 및 한식 홍보 강화
- 외식서비스 품질 제고

3. 전통식품
산업 활성화

- 김치산업 경쟁력 강화로 종주국 위상 제고
- 전통주 산업 도약 기반 조성
- 전통 장류를 소스 산업으로 육성

4. 식품산업과
농업 간 연계 강화

- 농업-기업간 지속가능한 상생협력 체계 구축
- 국산 원료 사용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

5. 식품산업의
성장 기반 공고화

- 식품·외식 기업의 경영 안전망 확충
- 식품기업의 ESG 경영 지원
- 국가식품클러스터 기능 확대
- 식품산업에 대한 소비자 신뢰 제고

추진 체계

- ◆ 산·학·관 기능 연계를 통한 체계적인 식품산업 진흥
- ◆ 식품 관련 법·제도·통계 등 인프라 강화

II. 2025년 주요 성과

- 푸드테크·그린바이오 등 신산업 육성을 위해 관련 법령 제정* 및 연구지원센터, 육성지구, 벤처캠퍼스 등 R&D·상용화 인프라** 확대
 -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(5개소), 그린바이오 소재 첨단분석(2개소)·산업화 시설(1개소) 신규 조성 및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지구 지정('25.12.1)
 - * 「그린바이오 산업법」('25.1.3.), 「푸드테크 산업법」('25.12.21.) 하위법령 제정·시행
 - **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(3개소 착공), 그린바이오 육성지구 지정(7개 지방정부) 등
 - 민·관(중기부·농협·삼성) 협업을 통한 중소 식품제조기업 스마트공장* 구축 지원 확대('24: 30개社 → '25: 45)
 - * 성과('25) : 생산성 33.6% ↑, 품질 44.4% ↑, 매출 12.7% ↑, 고용 2.3명 ↑, 산재율 12.8% ↓
 - 국가식품클러스터에 식품소분업('25.11.), 펫푸드·수직농장(고시 개정 중) 등 입주가능 업종 지속 확대, 특구지정을 통한 규제·세제특례 부여
 - * 기회발전(산업부, '24.6), 규제자유(중기부, '25.6), 연구개발특구(과기부, '25.12)
- K-푸드 수출은 137.3억불로 역대 최고 기록 경신(수산 포함, 전년 대비 5.6% 증가)
 - 미국, 중국, EU, GCC 지역 등을 중심으로 라면, 건강기능식품, 아이스크림 등 수출이 크게 증가하며 성장을 견인
 - * 주요 성장 시장(억불) : 미국 18.0(전년비 13%↑), 중국 15.9(5↑), EU 7.7(14↑), GCC 4.1(23↑)
 - ** 주요 증가 품목(억불) : 라면 15.2(전년비 22%↑), 건강기능식품 7.4(9↑), 아이스크림 1.1(22↑)
- K-콘텐츠(흑백요리사, 먹방 유튜브 등) 인기 등을 발판으로 세계 시장에서 한식에 대한 관심과 위상 제고
 - * (2025 한류 실태 조사) 한류 문화콘텐츠 1위 음식(53.7%), 가장 인기 제품/서비스 1위 식품(66.2%)
 - K-미식벨트 확대(누적 4개소)로 한식과 관광 연계 강화, 해외 한식당 품질 제고를 위해 해외 우수 한식당 지정(23개소)
 - * ('24) 장류(순창-담양), ('25) 인삼, 전통주, 김치, ('26, 예정) 치킨, 닭요리
 - 국제 미식행사인 아시아 50 베스트 레스토랑, 한식 컨퍼런스 개최를 통해 국내 미식 자원에 대한 글로벌 홍보
 - 건강 중시 트렌드, 정부의 산업육성 정책에 힘입어 전통식품 산업 성장
 - * 김치산업규모 : ('23) 6.4조원→('24) 6.3, 전통식품산업 규모 : ('22) 7.5조원→('23) 8.0
 - 우리쌀 소비 촉진 및 전통주를 고품질 명주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산업 활성화 방안 마련('25.2월)

Ⅲ. 2026년 과제별 추진계획

1

첨단기술을 통한 식품산업 성장 도모

1-1. 푸드테크 산업 육성

- 「푸드테크산업육성법」 및 하위법령 시행('25.12.21) 후속조치로 기본계획 수립 및 인프라 확충 지속 지원
 - (기본계획) 푸드테크 산업 육성 기본계획 수립을 통해 창업, 인력양성, R&D, 제품 저변확대 등 산업육성을 위한 전략 마련
 - (시설) 푸드테크 기업 입주공간, 특화 시설·장비 조성 등 시제품 제작·실증을 지원하는 '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' 구축 추진
 - * 스마트제조, 간편식 분야 우선사업대상자를 선정, 각 분야별 기본계획 수립 예정
공모접수, 발표평가현장검증('25.10~11월) → 사업자 선정('25.12월) → 기본계획 수립(~'26.2.27)
 - (앵커기업 육성) 지역별 성장잠재력이 높은 기업을 대표 앵커기업화해 집중 지원, 성과를 창출하는 프로젝트 추진
 - * 우수사례 홍보, 농산업 혁신벨트와 연계해 산업 집적화, 5극 3특 지역별 기술확산 생태계 조성
 - (기업지원) 창업부터 스케일업까지 전주기 지원체계 구축
 - 국가식품클러스터의 시제품 중심 창업지원 기능을 확대하여 푸드테크 기업 성장 단계별 맞춤형 지원*
 - * (탐색) 창업컨설팅, 아이디어 발굴 → (성장) 시제품 제작, 마케팅 전략 수립 → (국내) 판로 지원, 시장 안착 → (해외) 해외시장 분석 및 현지소비자 맞춤형 제품개발 지원, 수출 확대
 - 아이디어 단계, 투자연계형 등 단계별 R&D 지원체계 구축으로 기술의 사업화 뒷받침
 - * ①아이디어 단계(푸드테크 상용화 아이디어 보유한 기업에 1년 9개월간 1억원/년 지원), ② 투자연계형(최근 3년 내 2억원 이상 투자유치 기업에 1년 9개월간 2억원/년 지원)
 - (추진체계)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와 연계하여 필요 시설·장비 논의, 현장 정책과제 발굴을 위한 '푸드테크 분과위' 운영
 - * 신규 2개소 분야별 기본계획을 뒷받침하기 위해 분과위 구성·운영(3월~)

□ 전용 펀드·정책금융 활용한 자금지원, 해외시장 정보제공, 부처 협업형 스마트공장 도입 등 기업 맞춤형 지원

○ (자금) 푸드테크 스타트업 성장 펀드 확대, 창업자금 지원 지속

* 스마트농업혁신성장펀드(푸드테크·그린바이오분야) 조성규모 : ('25) 400억원 → ('26) 600

** 민간투자를 既 유치한 기업에 정부가 스케일업 자금을 추가 매칭 지원

○ (수출지원) K-푸드 페어, 농식품 해외 홍보관(UAE·인니·베트남 등)을 활용하여 체험형 행사(한강라면기계, 조리로봇 시연 등) 등* 홍보

* 수출지원기업 선정 → 美·EU·日·베트남 K-푸드 페어를 통한 B2B·B2C 홍보

- 기술·제품·레시피를 결합한 K-푸드 연계 패키지 상품 발굴·판매

○ (스마트 제조) 중기부 협업 식품 제조 분야 스마트공장 도입 확대

- 식품 제조기업의 제품설계·생산 공정 개선 등을 위해 자동화 장비·센서 등 도입 지원('25: 45개社 → '26: 70)

* 수요기업 모집(4~5월) → 사업자 평가·선정(6~7월) → 스마트 공장 도입(9월~)

□ 산학연 협력 기반의 푸드테크 인재양성 교육 지원 등 지속 추진

○ (전문성 강화) 푸드테크 인력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식품기업 재직자 대상 푸드테크 계약학과 석사과정 운영('26: 10개교 200명)

* ('25: 9개소) 경희대, 고려대, 서울대, 한양대, 전남대, 전북대, 전주대, 포항공대

○ (창업 지원) 푸드테크 분야 창업을 희망하는 대학 벤처연구팀 대상 사업화(창업·시제품개발·특허출원 등) 지원('26: 9개 기관)

* 취·창업 성과 제고를 위해 취업 멘토링, 창업 컨설팅 등 강화

○ (인턴십 지원) 푸드테크 분야 일자리 창출 및 기업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청년 대상 인턴십 인건비 및 직무 교육비 지원('26: 300명)

* '26년 8.7억원, 300명(1인당 최대 월100만원, 3개월 한도)

1-2. 그린바이오 산업 육성

□ 기능성 및 천연물 소재 발굴~제품화까지 전주기 지원을 위한 기능성 원료은행 본격 운영 및 천연물 소재 허브 구축

○ 기능성 원료은행* 시설·장비를 활용하여 국산 기능성 소재 실증, 가공·분양, 제품화 등 지원('26: 11.4억원, 국산기능성소재활용지원)

* '24.6월 준공, 국가식품클러스터 內

- 기능성표시식품 시장 활성화 및 식품기업의 수요 충족을 위해 기능성표시식품 제품개발 지원사업* 지속 지원

* ('25) 30개 기업, 900백만원 → ('26) 30개 기업, 900백만원

○ '26년 천연물소재 전주기 표준화 허브 구축 사업 추진(신규, 경남 진주, 강원 강릉'23~'27, 충북 제천'24~'28, 전남 장흥 '24~'29 사업 추진상황 점검(분기별)

□ '고령친화우수식품' 등 고령친화식품 소비확산을 위해 지자체 연계형 실증사업 추진

○ 지자체 식사돌봄 서비스를 활용한 고령친화우수식품('25: 268개) 판로 확대

* ('25) 고령친화식품의 소비 확대를 위한 산업 생태계 조성(공공형·민간형 → 선도 지자체 선정 식사돌봄 실증사업 운영)

○ 고령친화우수식품 제도 관리(지정·갱신 연 4회) 및 기업 대상 사용성 평가 지원('26: 50백만원, 평가비용의 70%), 고령친화우수식품 마케팅 지원

* 신규 소비확산사업, 유통처 2개 채널 지원, 맞춤형 MD 품평회 등 (국내) 신규 소비확산사업, 맞춤형 MD품평회, 푸드위크 참가 등, (국외) 상하이 FHA 등

○ 고령자·환자 맞춤형 R&D 14개 과제('21~'27년: 283억원)를 지원하고, '26년 신규 과제*(3개, 45억원) 공모·지원

* 중증환자 이마·이취 저감 식품, 인지기능장애 개선을 위한 식단 및 복합식품 개발 등

2-1. K-푸드 수출 확대

□ 민·관 협업으로 권역별 전략품목 선정하여 집중 육성

- 대중적 품목을 중심으로 글로벌 K-푸드를 선정하되, 프리미엄·고부가가치 시장 진출 확대를 위한 유망 전략품목 발굴 병행
- 검역타결 품목*의 초기 시장 진입 및 안정적 정착을 위해 유력 바이어 연계, 유통매장 입점 및 판촉 홍보 집중 지원

* (UAE) 할랄 한우, (중국) 단감, (싱가포르) 제주산 한우·돼지고기, (필리핀) 포도

- 민간과 정부가 공동 참여하는 'K-푸드 수출기획단' 구성 및 기업 지원 강화를 위해 'K-푸드 수출거점 재외공관' 지정·운영*(30개소)

* 거점공관 별로 유관기관·바이어 등으로 민·관 협의체 구성, 기업 진출 지원

□ 원스톱 애로해소 체계 구축 및 기업 친화적 수출 지원 환경 조성

- K-푸드 원스톱 수출지원허브를 신설하여 담당 부처·유관기관과 핫라인(온라인, 유선) 개설, 전문 분야별로 심층 애로 해소 지원
- 콜드체인 확충 및 유망 신시장 해외공동물류센터 지정 확대(산업부 협업)
- 수출 초보 기업도 지원 대상에 포함, 국산 원료 사용기업의 배정 한도 상향 등 농식품 수출바우처 지원 확대('25: 360 → '26: 720억원)
- 지재권 출원·등록 지원, 수출업체·농업인 대상 교육 및 소비자 참여행 캠페인 등을 통한 해외 위조·모방품 유통 적극 대응

□ **K-관광·컬처·콘텐츠 및 연관 상품과 함께 홍보 시너지 제고**

- 지역의 특색있는 음식과 관광 자원을 결합한 **K-미식벨트**를 **고도화** ('26년 치킨벨트)하여 인바운드 관광객을 K-푸드 소비자로 확장
- K-푸드 소재 **콘텐츠**(예능·드라마 등) **제작 지원**과 글로벌 채널(OTT·유튜브 등) **송출** 및 **K-푸드 제품 기획·개발** 지원
- 뷰티·패션·라이프 등 **주요 소비재와 연계**하여 체험이 가능한 **융합 마케팅**을 통해 글로벌 시장 진출 시너지 제고

□ **AI·ICT 등 첨단 기술을 현장 적용하여 기후변화, 검역 요건 등에 대응**

- 농식품 및 농산업 **스마트공장** 구축 지원 및 안정적인 수출 규격 물량을 확보를 위한 '**스마트 수출전문단지**' 조성
- **수출용 국산 신품종**(기후변화 대응, 소비 선호 등)의 생산부터 판매까지의 장애요인을 분석하고, 필요 기술개발 및 현장 적용 추진
- 수입국의 안전·위생 **규제 강화**(비관세장벽) **대응** 연구 확대 및 연구 결과의 신속한 **현장 적용**으로 신선농산물의 수출 리스크 경감

□ **중동 등 유망시장 진출 확대 및 할랄·비건·코셔 등 특수시장 공략**

- 국제 **식품박람회** 참가 지원, **K-할랄푸드 페어** 개최, 중동·아프리카 지역 코트라 농식품 **중점무역관** 지정 확대
- 민·관 참여 '**할랄식품 수출 협의체***'를 통해 할랄식품 수출 전략 및 제품 기획부터 인증, 현지 진출까지의 **기업 애로 해소** 지원

* 정부, 민간 할랄인증기관 등 + (추가) 지원 공공기관(aT, 식품진흥원, 코트라), 할랄식품기업

2-2. 국내 미식관광 활성화 및 한식 홍보 강화

- 해외 각국에서 활동할 수 있는 차세대 글로벌 한식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콘텐츠 개발·보급 등 인프라 구축
 - 셰프, 기업 등 전문가와 협업하여 표준 한식 커리큘럼을 개발하고, 민간 교육기관을 통해 실습형 교육과정인 ^{가칭}수라학교 개설·운영
 - 미국 CIA, 이태리 알마, 프랑스 르꼬르동블루 등 해외 유명 요리 학교를 대상으로 한식 교육과정 및 특강 개설
- 높아진 한식 위상과 소비를 유지·발전시키기 위해 한국 미식자원 홍보, 해외 한식 판매 기반을 마련
 - 한식 글로벌 컨퍼런스 등과 연계하여 한식 인지도 제고 및 한국 식재료·식문화 확산 유도
 - 해외 우수 한식당 지정 확대* 및 일반 한식당 인증** 제도 신설
- 해외 관광객의 지역 유입 확대를 위해 K-미식벨트 고도화, K-컬처 유관 기관과 협력하여 시너지 창출
 - K-미식벨트 민·관 협력 추진단*을 운영하여 현장 중심의 아이디어 발굴 및 관광 콘텐츠 다변화 추진

* ('22~'24, 누적) 16개소 → ('25) 23 → ('26) 30

** 연구용역을 통해 일반한식당 인증 기준(한국 식재료 사용, 한식 판매 등) 마련

* 치킨업계, 관광업계, 콘텐츠 전문가 및 정부, 유관기관 등으로 구성된 민·관 협력 추진단

* ('24) 장류(순창-담양), ('25) 인삼, 전통주, 김치, ('26, 예정) 치킨, 닭요리

2-3. 외식서비스 품질 제고

- 푸드테크 기술 적용, 외식업 관련 정보제공 등 외식 경쟁력 강화
 - 공공배달앱 입점 외식업소 및 푸드테크 기술을 도입·적용을 희망하는 외식업소에 대해 경영혁신 외식서비스 지원사업 우선 선정
 - * 외식물가 안정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해 공공배달앱 입점 외식업소 우대 등 '26년 지침개정
 - 외식업체가 변화하는 시장에 대응할 수 있도록 외식 소비 트렌드 분석, 데이터 결합을 통한 외식 경영전략분석 등 정보 제공
 - * 외식경기동향지수(분기), 외식트렌드(1년), 외식업체경영실태(1년), 외식경영전략분석(월)
 - 산·학·관이 참여하는 '외식산업 발전포럼*'을 중심으로 외식 분야 현안 과제 발굴, 개선방안 논의 활성화(분기별 1회)
 - * 총 위원 49명(외식업계, 학계, 연구원 등), 3개 분과위(정책, 산업, 해외 진출)로 구성
- 외식기업 해외 진출 촉진을 위해 정보제공·자금지원 강화
 - 국가별 선호메뉴, 식재료 조달방안, 현지 바이어 등 해외 정보 제공 및 국제 프랜차이즈 박람회 참가('26: 프랑스, 호주 등 6개국) 등 지원
 - '외식기업 해외진출 바우처 지원사업'('26: 3.6억원) 사업규모* 확대 및 브랜드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신규·기존 지원비율 조정
 - * 사업규모 : (프랜차이즈 박람회) 연 4회→ 5, (맞춤형지원) 10개社→ 15
 - ** 기존/신규 지원비율 : ('25) 신규 10개사 : 기존 5 → ('26) 8 : 7
 - 외식 기업 해외 진출 우수사례 공유, 정부 지원사업 안내·건의사항 청취를 위한 워크숍 개최(6월)

3-1. 김치산업 경쟁력 강화

- 김치 원료 수급 안정 및 제조 원가 절감 등을 통한 산업 기반 강화
 - 기후변화 대응 내재해·내병성 품종 개발로 안정적 수급 기반 마련
 - * 내재해성·내병성 배추·무 개발 품종 : ('12~'22, 누적) 10개 → ('25) 12 → ('27) 15
 - '김치원료공급단지'*에 저온저장시설, 가공시설 등을 조성하여 권역별 중소 김치업체에 원료수급 기능 수행
 - * 충북 괴산, 전남 해남('26 완공), 전북 고창('28 완공) 총 3개소
 - 절임염수 재활용 설비 지원으로 소금 및 폐수처리비용 절감 등
- 김치 종균 개발, 핵심 원천기술 확보 등을 통해 수출 경쟁력 확보
 - 김치 품질 경쟁력 제고를 위한 종균 개발 및 보급
 - * 종균 적용 이후 품질향상, 매출 증대 등 주요성과 분석 등을 포함한 우수사례집 홍보영상 등 제작
 - 장기 저장·유통 시스템 및 발효 품질 예측 알고리즘 개발·검증
 - * 기존 김치유통기한(30일) 대비 3~5배 연장(배추김치 90, 갓김치 150) 시스템 구축
- 수출 시장 확대 및 해외 접근성 제고
 - 현지 맞춤형 상품(비건김치·상온김치) 개발 및 수출기업 애로 해소 지원
 - 김치품평회·김치페스티벌 등 홍보 연계를 통한 우수 김치 수출 기반 확충
- 푸드테크 기반 산업 고도화 및 산업 지속 가능성 확보
 - 제조공정 기계화 및 AI 기반 김치 품질관리 기술 도입으로 생산 효율성 제고
 - 민·관 협의체 운영 및 전문인력 양성을 통한 산업 지속가능성 강화

3-2. 전통주 산업 육성

- 고품질 주류 생산 연구개발, 전용자금 운용, 유통·소비 확대 등 지원
 - 우리술(SOOL) 해외 인지도 제고를 위해 브랜딩*(4가지) 추진
 - * 막걸리(Mageolli), 약·청주(K-Rice Wine), 과실주(K-Fruit Wine), 증류주(K-Rice Soju)
 - 전통주 수출 활성화를 위해 주류 숙성(나무통, 도기 등) 및 생주 후발효 억제 등 생산·유통방식 개선을 위한 기술 연구 추진
 - ‘우리술 품평회(7월)·대축제(11월)’ 등으로 우수 제품을 발굴하고 유통 관계자·해외 바이어 초청 상담회 개최로 국내외 판로 지원
 - ‘전통주 마시는주(Week)’ 기획, 전통주 갤러리를 통한 전통주 및 지역 양조장 홍보 추진
- ‘전통주 등’을 지역 문화·관광상품으로 육성
 - ‘막걸리빛기’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 등재를 위해 막걸리 자조금 등을 활용하여 학술연구·심포지엄 추진 및 국내외 홍보
 - ‘찾아가는 양조장’(신규 5개)을 선정하고 관광·체험 콘텐츠 강화
 - * 인플루언서 및 외국인 유학생 대상 양조장 팸 투어, 워크숍, 굿즈 제작 추진
 - 저도주 선호 소비트렌드를 반영해 ‘대한민국 우리술 품평회’ 수상 증류주 등 활용 칵테일 레시피 개발·보급
- 프리미엄화, 한식과의 연계를 통해 전통주 수출 확대
 - 재외공관·해외문화홍보원과 전통주 홍보 프로그램을 지속 추진하고 건배주로 전통주를 활용*할 수 있도록 지원
 - * 수출거점 재외공관(30개) 대상 전통주 건배주(32개제품) 가이드북 제작 및 배포
 - 술 패키징 지원을 위한 ‘전통주 양조장 역량강화 컨설팅’ 지속 및 해외 우수 한식당과의 연계 방안 발굴

3-3. 전통 장류산업 육성

- ‘발효미생물산업화센터’(순창)를 통해 우수 종균을 개발·보급하여 전통 장류의 산업화 지원
 - 우수 종균 개발 확대(‘25: 28종 → ‘26: 33), 장류·식초류 제조기업(18개소)에 컨설팅·품질 분석·시제품 개발 등 지원(‘26: 4.5억원)
 - * (‘25) 황국균·고초균·효모·초산균 등을 18개 업체에서 보급하여, 청국장·메주·된장·식초 제품 출시
 - 전통 장류 안전성·기능성·우수성에 대한 과학적 규명(‘26: 24억원), 제조과정에서 생성될 수 있는 위해요소 모니터링
- 전통 장류를 활용한 한식 소스 개발, 시제품 생산 등을 지원하여 소스 산업과 연계(소스산업화센터, 국가식품클러스터 內)
 - 시설·장비·전문인력을 공동 활용하여 중소 식품기업 소스 위탁개발, 시제품 생산 등 지원(‘26: 4.5억)
 - * (‘25) 옹고집: 고추장+유자 결합 고추장잼 개발(글로벌 K-소스) / 건강선생이종숙: 된장카라멜 스프레드(전통식품 품질인증 업체) / 목포수산식품지원센터: 전복툇밥 매운맛소스 개발(상품화 지원)
- 전통식품분야 식품명인을 발굴·육성하고, 내외국인 관광과 연계하여 전통식품 홍보 및 전통문화 가치 확산
 - 식품명인의 전통식품 제조 방법을 영상·도서 등의 형태로 기록하고, 전수자 장려금 지원으로 후대에 전승·보존(‘26: 7억원)
 - * 장류 제조기능 DB화 : 장류 명인 13명 중 12명 추진, ‘26년 사업으로 완료 예정
 - 한식문화공간 ‘이음’ 內 ‘식품명인체험홍보관’에서 전통식품 체험 프로그램 운영(‘25: 257회 → ‘26: 276), 제품(300여개) 전시·판매
 - 우리의 ‘장 담그기 문화’ 유네스코 등재(‘24.12) 계기, ‘이음’ 내 ‘한국의 장’ 상설 전시 등 내외국인 대상 전통장 홍보 확대
 - * 지방정부·유통채널과 협력하여 식품명인 참여 체험·홍보 추진

4

식품산업과 농업 간 연계 강화

- 식품·외식 기업의 국산 농산물 사용을 확대하고 농가에 안정적인 판로를 제공하기 위한 식품산업과 연계 강화 지원('26: 30억원)
 - 국산 농산물 생산자 및 식품기업의 농업 상생협력 활동 지원
 - 안정적 대량공급이 가능한 산지조직과 식품·외식기업을 매칭, 지역 농산물을 활용한 협업 제품개발 프로젝트 발굴·추진
 - * 기존 계약재배 정보 공유 중심의 플랫폼('25.7월 구축)은 다수가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단순화·개방하여 프로젝트 발굴 및 구성에 활용
 - 식품·외식 업체와 계약재배하는 국산 농산물 생산자단체 대상 품질 관리, 시설·장비 임대 등 지원(단체당 40백만원 이내)
 - 계약재배를 통해 국산 농산물을 활용하는 식품기업 대상 신제품 개발, 시장조사·마케팅, 원료 운송·저장 등 지원(기업당 20백만원 이내)
- 주요 식품에 국산 원료 공급을 위해 생산단지 조성 확대
 - 전락작물직불제('26: 최대 400만원/ha)를 활용, 밀·콩·가루쌀 전문 생산 단지 조성을 확대*하고, 정부 보급종 공급, 시설·장비 등 지원
 - * 밀 전문생산단지: ('25) 112개소(10.8천ha) → ('26) 137(12.8천)(p)
 - 콩 전문생산단지: ('25) 209개소(14.2천ha) → ('26) 232(15천)(p)
 - 가루쌀 전문생산단지: ('25) 158개소(9.8천ha) → ('26) 150(8.0천)(p)
 - 식품기업과 감자를 계약재배하는 생산단지에 시설장비 등 지원
 - * '23년부터 개소당 2억원, '26년까지 15개소로 확대
 - 주요 대체식품 원료(대두·쌀·버섯 등)의 소재 가공성*, 압출성형 특성, 대체 소재(당류·염류·지방 등) 등 정보를 DB화하여 식품기업에 제공
 - * 농진청 식품연 등 협조를 통해 원료소재 특성 등 R&D 정보 DB화, '디지털 식품정보 플랫폼에 제공('25~)

□ 식품 소재·반가공 기업 및 농산물 산지유통센터(APC)를 활용하여
국산 소재·반가공 제품 유통 활성화

○ 식품 소재·반가공 기업에 대한 시설현대화 지원사업 대상 선정 시,
농가와 상생협력에 대한 평가 반영*('26~'27: 2년차 사업 20.8억원)

* 농가와 소재 기업, 식품기업 간 상생협력 시 선정평가에서 가점 부여

○ 식품소재·반가공 산업 활성화를 위해 산지유통센터 內 필요한 전처리
시설·장비 등 포함 지원('26: 360억원)

- 산지유통센터가 농산물 온라인 도매시장 판매자로 거래에 참여하여
식품기업·외식 업체 등에 국산 농산물 공급

□ 국산 원료 사용 우수기업에 대해 정책자금 금리 인하, 우선 지원,
정부 포상 등 인센티브 지원 확대

○ 원료매입자금('26: 1,434억원) 지원 시 국산 농산물 구매실적 반영,
청년기업 우대* 등 금리인하($\Delta 0.5 \sim 1.0\%p$) 지속

* 농식품분야 청년 유입 및 산업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읍·면 소재 청년창업 기업
(39세 이하)에 대하여 고정금리 1%p 금리 인하

○ 농공상융합형 중소기업('26: 402개소) 재지정 시, 국산원료 구매실적을
우선적으로 고려('26: 12.4억원*)

* 전용 판매관(우체국, 오아시스 등 10개소) 운영, 온오프라인 판로개척, 홍보박람회 참가지원 등

○ 농업과의 상생 실적이 우수한 식품기업을 발굴(지자체·협회·유관기관 추천)
하여 '농식품부×COEX Food Week'(11월 예정)에서 정부 포상 추진

5-1. 국가식품클러스터 기능 확대

- 입주기업 제품전시·판매, 소비자 식품문화·체험, 관광 등이 융합된 K-푸드파크 조성(계속)
 - 식품문화복합 혁신센터*와 연계한 인근 도리산 공원 정비(도시숲 조성, 저류지 정비)를 통해 방문객에게 볼거리·쉴거리가 있는 공간 제공
 - * (저류지 정비) 수목터널, 쉼터 등 다목적 휴게 공간 조성('25.~'26.)
- 지역의 산·학·연 식품 관련 자원을 활용한 식품융합클러스터 조성
 - 국가식품클러스터를 중심으로 식품산업 집적지*를 연계한 식품융합 클러스터를 운영(2개소 시범운영, '26.4월~)하여 전국단위 지원 강화
 - * 그린바이오 벤처캠퍼스, 푸드테크 혁신센터, 지역식품집적지 등
 - 국가식품클러스터 기업지원 시설과 장비를 통한 기술개발 지원
 - * 식품관련 기업, 기관, 대학 등에 제품시험분석 및 시제품 생산용 장비 공동활용 지원(계속)
- 국가식품클러스터를 'K-푸드 청년창업 통합지원 허브'로 구축·운영
 - K-푸드 창업사관학교를 개설하여 식품 창업 탐색부터 성장 및 수출까지 전주기 지원을 통해 안정적 창업 성공 지원
 - * (창업) 교육컨설팅 시제품 제작 등 → (성장) 제품개발 판로지원 등 → (글로벌) 시장개척 수출 확대 등
- K-푸드 글로벌 확장 뒷받침을 위한 해외수출지원센터 운영
 - 할랄인증 지원, 기업 현황진단, 해외시장 진출 등 수출 전주기 지원
 - * 국가별 할랄인증 조건·검역·통관 등 DB 구축, 수출기업에 정보 제공
 - 국제인증 협력 네트워크 구축* 및 상시 기업지원 체계 운영
 - * 국내외 민간·공공(협회+국내·현지 인증기관^{JAKIM·MUI·ESMA} 등) 통합 협력기반 조성

5-2. 식품·외식 기업의 경영 안전망 확충

□ 음식점업에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제 도입 확대 등을 통한 식품·외식업계 인력난 해소

○ 음식점업 고용허가제(E-9, '24 시범도입) 홍보 및 모니터링 추진

* 농식품부 누리집·SNS 게시, The 외식(aT)·관련 협회·지자체 게시 요청 및 배달앱 3사의 사업주 전용 채널 등 연계 홍보(고용허가 신청·접수 총 5회)

○ 지자체·배달앱별 공공배달앱을 한 곳에서 볼 수 있도록 통합포털(웹) 구축·운영('25.4~), 외식단체 등과 협업하여 외식업체 입점 확대 추진

○ 외식업계 경영안정 지원을 위한 외식업체육성자금 지원('26: 300억원)

* 지역 외식업소 국산 식재료 공동구매 지원('25: 5.0억원→'26: 4.5) 병행

□ 원재료 수급 불안에 대응, 주요 식품 원재료에 대한 할당관세 적용, 해외농업 개발과의 연계 강화

○ 원가부담 완화를 위한 가공원료 할당관세 확대('25년초: 13개 품목 → '26: 22*), 시장상황, 식품기업 수요 등을 반영하여 품목 확대 수시 검토

* 옥수수(가공용), 커피(생두), 대두(채유탈지대두박용), 설탕, 코코아두, 해바라기씨유 등

○ 환율 변동, 공급망 위기 등에 대비해 식품기업 원료 구매자금 지원 범위를 식량 이외 식품소재까지 확대('25: 밀+유지류 등)

○ 해외농업자원개발 진출지역을 미주, CIS 등으로 다변화*

* 미주, CIS 등으로 진출하는 기업에 지원사업(용자, 보조) 가점 부여('26.1월~)

5-3. 식품기업의 ESG 경영 지원

- EU 공급망 실사법 등에 대한 식품기업의 대응력 강화 및 농식품 수출 확대를 위해 식품분야 ESG 경영 지원
 - 중소식품기업의 ESG 경영 이해 및 온실가스 감축 등 ESG 경영 적용을 위한 ‘대·중견·중소 식품기업 대상 ESG 교육 및 컨설팅’ 운영
 - * 실무 중심의 수준별 온오프라인 교육 / 식품분야 ESG 경영 가이드라인(25.1월 활용 / 개별 컨설팅 추진
 - * '26년 8회 180명(목표) / 식품산업인프라강화-식품판로지원-식품판로개척지원(70백만원)
 - '23년부터 중소식품기업 대상 ESG 경영 컨설팅 지원('26: 10억원)
 - * 식품산업인프라강화-식품품질역량제고(심층(3~6개월), 단기)

5-4. 식품산업에 대한 소비자 신뢰 제고

- 생산단계별 안전한 식품 공급체계 구축을 통해 안전관리 강화
 - 온라인·직거래 농산물 및 식중독 분야 조사 물량 확대*, 「농산물 안전 중점 관리팀」을 통한 취약 분야 교육·홍보 및 부적합률 개선 등 추진
 - * 구성: (상황반) 농식품부(주관), 농진청, 농협 (관리반) 농관원·지자체(주관), 지역농협 등 전년도 부적합 상위 시·군 대상 운영 / 확대 ('25) 21개 시·군 -> ('26) 23
 - 축산물 PLS 본격 시행 및 2단계 확대 도입(소수축종) 대비 동물약품 안전성 검증(12개 품목), 생산단계 축산물 스마트 HACCP 시스템 개발 및 보급·확대*
 - * 도축·집유장 분야 스마트 HACCP 시스템 개발 및 도축·집유장 8개소 현장구축 지원
- 농식품 관련 정책에 소비자 참여 및 정보제공 등 추진하여 소통 강화
 - 소비자단체 소통협의체('26: 5회, 13개 단체) 운영 및 GMO 완전 표시제 도입으로 소비자 대상 정보제공 강화

참고

과제별 추진 일정

연번	추진과제	주관 (협조)	일정
----	------	------------	----

1. 첨단기술을 통한 식품산업 성장 도모

(1) 푸드테크 산업 육성

①	푸드테크 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	농식품부	연중
②	푸드테크 기업 지원	농식품부	연중
③	푸드테크 전문인력 육성	농식품부	연중

(2) 그린바이오 산업 육성

①	기능성식품 산업 활성화	농식품부	연중
②	고령친화우수식품 지정 활성화	농식품부	연중

2. K-Food의 경쟁력 강화

(1) K-Food 수출 확대

①	수출 구조·체질 개선	농식품부 (aT)	연중
②	수출 영토 확장	농식품부 (aT)	연중
③	수출 마케팅 강화	농식품부 (aT)	연중
④	수출기업 대상 자금지원 확대	농식품부 (aT)	연중
⑤	수출 확대를 위한 민·관 협력 강화	농식품부 (aT)	연중

(2) 국내 미식관광 활성화 및 한식 홍보 강화

①	국내 미식관광 활성화	농식품부 (한식진흥원)	연중
②	해외 우수한식당 지정 확대 및 국제 미식행사 개최	농식품부 (한식진흥원, aT)	연중
③	한식 산업 경쟁력 강화 전략 추진	농식품부	완료 (’24.2월)

(3) 외식서비스 품질 제고			
①	국내 외식 경쟁력 강화	농식품부	연중
②	외식기업 해외 진출 지원	농식품부 (aT)	연중
③	외식산업 발전포럼 운영	농식품부	연중

3. 전통식품 산업 활성화

(1) 김치산업 경쟁력 강화			
①	김치 원료 공급단지 조성	농식품부 (지자체)	연중
②	김치 생산 자동화 기술 개발	농식품부 (김치연)	연중
③	김치 종균 개발 및 보급 확대	농식품부 (김치연)	연중
④	김치 관련 교육·체험 기회 확대	농식품부 (김치협회)	연중
⑤	수출국 맞춤형 김치 제품 및 장기 유통기술 개발	농식품부 (김치연, aT)	연중

(2) 전통주 산업 도약 기반 조성			
①	전통주 산업 성장지원	농식품부 (aT, 한식연)	연중
②	'전통주 등'을 지역 문화 관광상품으로 육성	농식품부 (지자체)	연중
③	프리미엄화, 한식과의 연계를 통한 전통주 수출 확대	농식품부 (한식진흥원, aT)	연중

(3) 전통 장류를 소스 산업으로 육성			
①	전통 장류 산업화 지원	농식품부 (지자체)	연중
②	전통 장류 활용 소스 개발·시제품 생산	농식품부 (식품진흥원)	연중
③	전통식품명인 발굴·육성 및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 등재	농식품부 (한식진흥원)	연중

4. 식품산업과 농업 간 연계 강화

①	생산자단체 및 식품기업 대상 상생협력 체계 구축 지원	농식품부	연중
②	식품 원료 생산단지 조성 확대 및 DB 구축	농식품부 (농진청, 식품진흥원)	연중
③	식품 소재·반가공 산업 활성화	농식품부	연중
④	국산 원료 사용 우수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	농식품부	연중

5. 식품산업의 성장 기반 공고화

(1) 국가식품클러스터 기능 확대

①	식품기업에 대한 지원 기능 강화	농식품부 (식품진흥원)	연중
②	국가식품클러스터 발전방안 수립	농식품부 (식품진흥원)	완료 (‘24.12월)

(2) 식품·외식 기업의 경영 안전망 확충

①	외국인력 고용 규제 완화 및 생산인력 지원	농식품부 고용부, 법무부	연중
②	자금·원재료 등 경영지원 강화	농식품부	연중

(3) 식품기업의 ESG 경영 지원

①	식품기업 대상 ESG 경영 실태조사	농식품부	연중
②	식품기업 ESG 경영 컨설팅 지원	농식품부	연중

(4) 식품산업에 대한 소비자 신뢰 제고

①	생산단계별 안전한 식품 공급체계 구축	농식품부	연중
②	식품 관련 소비자 참여 및 정보제공 확대	농식품부	연중